

중국, 대북 강·온 투트랙 전략 구체화

6자회담 수석대표 한국 파견 남한과 대화·북한 제재 확대 미국 압박 속 제재 수위 고심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중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10일 자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방한토록 하는 등 대화 재개의 틀 가동해 나갔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에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하지 말라고 단도리하는 한편 이전보다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를 확인한 데 이어, 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애초 경로를 변경해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는 걸 심상치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선봉은 대처로 일관했다가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일 베이징 외교부에서는

중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6자회담 틀을 재가동해 대화 시동을 거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향 판단'을 마친 중국의 행보가 이제는 구체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정상회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폭격 지시를 내리는 걸 목도한 시 주석이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착수해야 하며, 북한의 거친 기세를 감안해 '강온 전략'을 실행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책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정상회담 전에도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의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해법이 그것이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만찬·업무 회동 등의 7시간 대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화와 협상이라는 해법을 고수한

시 주석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위에 두고" 북한 선제 타격문까지 암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책을 고수했다. 외신들이 회담 전에 예상했던 대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선에 그쳤다.

그 밖에 미국은 '독자행동' 가능성에, 중국은 대화의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정상회담 후 렉스 틸러스 미 국무장관 등의 발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역력하다. 미국의 독자행동 의지는 호주로 향하던 미 칼빈슨 항공모함의 한반도 행(行)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이 다급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행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보인다.

중국으로선 우선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그걸 위해선 북한은 물론 여타 관련국들에 강한 양면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중국의 해법은 큰 틀에서 보면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쌍궤병행(雙軌並行·비

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와 논의를 수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차 제재)'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이 쌍궤병행과 쌍중단 이상의 해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중국으로의 북한 인력과 물자반입, 북중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제재 카드로 쓸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중국은 지난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은 이에 더해 중국의 대북 송유관 차단 조치와 북중 점경무역 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두 가지 조치는 자칫 북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은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차단하는 한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부의 전망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수나라 2대 황제 수양제

수양제(隋煬帝, 569-618)는 수나라를 창건한 문제의 차남으로 이름은 양광이다. 2대 황제가 되어 대운하 건설, 전쟁 등을 일으켜 수나라를 멸망시킨 망국의 군주다.

그는 문제와 독고황후 사이에 태어난 다섯 아들 중 한명으로 불교했다. 그러나 독고황후의 아집이 그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올렸다. 독고황후는 남편의 정절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여성이었다. 장남 양왕이 "첩에 후하고 처에 박한" 행태를 보이자 용납할 수 없었다. 장남을 폐하고 차남인 양광을 새로운 후계자로 삼았다. 604년 문제가 죽자 제위에 올랐다. 문제의 죽음에 관해서는 살해당했다는 주장이 오랜기간 제기되었다. 정사인 수서

가 넘을 정도였다. 양주의 이공 역시 천하의 수도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강남 지방의 희귀한 석재와 재료를 운반하는데 이백여만의 백성이 동원되었다.

3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이 양제의 몰락을 재촉했다. 주변의 국가들은 사신과 공물을 보내거나 왕이 직접 내조하는 등 수나라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시종 일관 이를 무시했다. 612년 100만 대군을 동원했으나 만주의 요동성조차 함락시키지 못할 정도로 실책이 이어졌다. 613년 2차 정벌은 요동성 함락을 목전에 두었으나 예부상서 양현감의 반란으로 인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614년 3차 정벌 역시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고구려와 전쟁·대운하에 미쳐 망국

(隋書)에 의하면 그는 마음에 두고 있던 문제의 후궁 선화부인을 범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문제가 분노해 황태자를 바꾸려 했다. 이를 양광과 그 일파가 저지했고 그런 와중에 문제가 죽었다. "이런 이 유로 중외에 매우 이룬이 많았다"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양제는 문제로부터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통치기구는 견고했고 민생은 안정되었다. "창고가 차서 넘쳐 흐른다"는 말처럼 풍요로웠다. 문제 초기 전국은 400만호였는데 말년에는 890만호가 넘었다. 양제는 막대한 국고를 운하 건설, 궁전 조성, 전쟁 수행에 쏟아부었다. 수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남북간 교통이 중요해졌다. 정치의 중심은 북쪽이었지만 물산은 남쪽이 풍부했다. 남쪽 물자의 대량 수송이 없이는 왕조를 지탱할 수 없었다. 수도 장안과 양자강 하류인 양주까지를 연결하는 대운하가 건설되었다. 동서 및 남북으로 연결된 수로가 만들어져 물자 유통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운하 건설에 1억5천만명이 동원되었다. 낙양에서 강주를 연결하는 통제거를 건설하는데만 백만여명이 동원되었는데 인부의 3분의 2가 죽었다고 한다.

양제는 도처에 화려한 궁전을 건설했다. 장안에서 양주까지 강 연변에만 40여개소나 되었다고 한다. 낙양 부근의 서원은 주위가 일백 킬로미터

양제 정권은 사위인 우문사급과 그의 부친 우문술이 중심이었다. 양제 즉위에 크게 기여한 양소는 제거되었다. 황제에게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양소의 아들 양현감은 친구 이밀의 영향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양제는 측근들에게 "양소가 병사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간 일족이 모두 죽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양현감의 반란을 저지했다. 양현감의 반 양제 감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강남의 사치와 풍광에 빠진 양제는 여러 차례 양주로 남하했다. 황제가 타는 배인 용주(龍舟)는 길이가 2백자나 되고 배를 끄는 사람이 1천명을 넘었다. 황제 일행이 강을 따라 내려가는데 무려 8만여명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각지에서 붕기가 일어나자 양주에서 수도로 귀향할 생각이 없어졌다. 여차하면 양주를 거점으로 삼아 천하의 절반이라도 보전하자고 생각했다. 궁중에 있는 100개 방에 미녀를 두고 날마다 새방을 찾아가는 황음을 일삼았다. 618년 3월 양제가 살해되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곁에 있던 소환후에게 "좋은 머리, 과연 누가 이것을 자를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측근인 우문위장군 우문 화급이 황제를 죽였다. 황족도 이때 거의 다 살해되었다. 교토대 미야자키 이치사타 교수는 그를 "전쟁과 대운하에 미친 중국 최악의 폭군"으로 평가하였다.

서해 훈련 中 라오닝호, 칼빈슨호 접근 촉각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의 한반도 전장에 맞서 서해에서 훈련 중이던 중국 항공모함 라오닝(遼寧)호도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관영 중국청년망은 라오닝호 전단이 최근 한반도 주변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서해와 보하이(渤海) 일대에서 계속해서 해상 전체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시리아 정세에 전세계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미국의 개별 이익집단이 시기에 영합해 지지를 받으려는 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칼빈슨호 항모전단의 서태평양 전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스타일에 미뤄 이번 칼빈슨호 파견도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을 타격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커지자 싱가포르에 정박 중이던 칼빈슨호 항모 전단은 계획됐던 호주 항로가 아닌 한반도로 기수를 돌린 상태다. 니미츠급 칼빈슨호 전단은 두 척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한 척의 유도미사일 순양함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군은 미중 정상회담 사흘 전인 지난 3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라오닝호가 지난달 20일부터 서해와 보하이 일대에서 구축함, 함재기, 헬기 등을 동원해 연례 해상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훈련은 라오닝호 전단이 울초 서태평양, 남중국해 훈련을 마치고 지난 1월 13일 모항인 칭다오(靑島)항으로 귀향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실전 상황을 가상해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것처럼 보이는 공중 대항전, 전면 타격 등 임무과제를 수행하며 헬기 야간 착륙훈련을 통해 수색 구조, 경계 임무를 수행했다. /연합뉴스



미 칼빈슨함 한반도 재전개



북한 3월 19일~25일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한미 연합훈련 참가 미유 싱가포르 항

북한 미사일 및 핵 위협 대비 칼빈슨호 한반도 재전개

서태평양

필리핀

싱가포르

싱가포르 입항 한 칼빈슨호 호주항이었으나 9일 한반도 쪽으로 항로 급변경

기존항로 (호주항)

‘트럼프 눈치’ 주요국 대미 무역흑자 ‘뚝’ 한국 흑자 감소율 전년대비 25%로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많은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무역전쟁의 타깃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올해 들어 한국, 인도, 대만 등 주요 국가의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전쟁을 우려해 대미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데 경쟁적으로 나선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미국의 상품무역수지 적자는 1178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1119억4000만 달러)에 비해 5.2%(58억7000만 달러) 늘어났다.

이 기간 수출이 2373억4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221억1000만 달러)보다 6.9%(152억3000만 달러) 늘어났는데도, 수입도 355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3340억5000만 달러)보다 6.3%(211억 달러)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교역국 가운데 올해 들어 대미 상품무역흑자 많이 축소된 곳은 한국, 인도, 대만, 중국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과 대만, 중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목한 6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대미 흑자 감소율은 한국이 높았고 감소액은 중국이 컸다. 한국의 지난 1~2월 대미 상품수지 무역흑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5%(129억9000만 달러) 줄었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9억 달러로 전년 동기(63억 달러)보다 늘고, 미국으로의 수출은 108억 달러로 전년 동기(115억 달러)보다 감소한 덕이다.

이어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는 같은 기간에 16%(6억 8000만 달러), 대만은 12%(2억7000만 달러), 중국은 5%(27억8000만 달러) 각각 축소됐다. 이 가운데 중국의 경우 미국산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우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조정가능)
- 주인직매

H.010-3605-5000

광양, ㅉ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중동 락희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H.010-3605-5000

나주, 남평읍 토지

-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
-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계획관리지역
-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 평당 60~100만원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 장기투자 최고물건
- 주인직매

H.010-3605-5000